

조국의 서북변 압록강 기슭에
초유의 대온실군, 리상적인 농장도시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

조선

2026 2
(838)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례

특별소식

- 2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회의 진행
- 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 10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 기념대회 성대히 진행
- 20 ॥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 26 ॥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진행
- 32 ॥ 름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 진행
- 38 ॥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 진행
- 4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 48 ॥ 지방혁명의 전면적인 확대고조를 향한 새년도 투쟁의 기세찬 발화
은루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 5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 5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조각창작사업을 지도하시였다
- 58 ॥ 극초음속미싸일발사훈련 진행
- 60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대구경방사포무기 체계시험사격 진행

특집

- 64 ॥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흄모의 마음

오늘의 조선

- 72 ॥ 평안남도의 은산종이공장
- 76 ॥ 새로 일떠선 통합병설학교
- 82 ॥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표지, 뒤페이지: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편집: 변일진, 김규성, 승룡, 리금주, 조령



20



38



60



72



7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7차 정치국회의가 2월 7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대회준비위원회 해당 분과성원들이 당중앙위원회 중요부서 부부장들이 방청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가 회의를 집행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토의안건을 의결하였다.

첫째 《당 제9차대회 대표자격심의에 대하여》

둘째 《당 제9차대회 집행부, 주석단, 서기부 구성안심의에 대하여》

셋째 《당 제9차대회 일정심의에 대하여》

넷째 《당 제9차대회에 제기할 문건심의에 대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보고들을 청취하고 심의한데 기초하여 해당한 결정들을 가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대회준비위원회의 해당 분과들이 당대회준비사업을 각방으로 실속있게 추진해온데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시고 당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원칙적문제들과 세부적인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2026년 2월 하순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창건 78돐에 즈음하여 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을 축하방문하시고 전군의 장병들을 축하격려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가 동행하였다.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엄숙한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국방성 주요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각급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의 명예의 상징인 승리의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게양되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최고사령관의 사열을 받으며 보무당당히 행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군절을 기념하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영웅한 공화국무력의 전체 장령, 군관, 병사들! 조선인민군의 최고지휘기관인 국방성의 장령, 군관동지들!

2.8절을 축하합니다.

우리 군대의 영웅적인 건군사와 백승의 행로를 긍지 높이 떠올리는 이 명절은 비단 총잡은 군무자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들모두가 의의깊게 경축하는 혁명적 명절입니다.

나는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군대도 견줄수 없는 거대한 사명과 중임을 떠메고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해 백방의 역할과 무한한 헌신을 다하고있는 우리 군대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담아 건군절을 맞는 전체 장병들에게 당과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당의 군사로선과 정책을 전군의 군사정치활동에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전력하고있는 국방성 지휘 성원들과 대련합부대 군정간부들의 책임적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멀리 이역의 전투진지에서 영웅군대의 명예를 걸고 조국의 명령을 수행하고있는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 전투원들, 오늘따라 더더욱 보고싶어지는 그들에게 건군명절을 맞으며 뜨거운 격려와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해마다 이날을 맞이하군 하지만 나는 오늘 참으로 류다른 감정을 안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오래지 않아 개회하게 될 당 제9차대회를 앞둔 건군절인것으로 하여 우리 군대의 위대함과 극적인 사변들과 혁혁한 공훈들이 특별히 많았던 한해였으며 이로 하여 자기 군대에 대한 당과 인민의 신뢰와 사랑이

창군이래 언제나 그려하였지만 지나온 5년간 격변속에 흘러온 승리의 려정을 돌이켜보느라니 우리 군대의 거대한 역할이 없었다면 정녕코 오늘의 영광은 없었을것이라는 생각에 우리 군대 전체 장병들에 대한 마음속감사를 이루 다 표현할길 없습니다.

인민군장병들!

한해한해가 힘겨웠던 개척투쟁, 변혁투쟁의 전위에서 당의 위업을 보위하고 나라의 주권안전과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 정말로 큰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 년도에 더 수고가 많았음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대만이 이루어낼수 있는 력대초유의 극적인 사변들과 혁혁한 공훈들이 특별히 많았던 한해였으며 이로 하여 자기 군대에 대한 당과 인민의 신뢰와 사랑이

더 커지고 강렬해진 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대가 거칠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무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하는것이 우리 군대의 기질이고 본래임을 우리 군대는 시대와 역사앞에 증명해보였습니다.

모두가 각오하고있는바 올해는 우리 군대의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더 과감히 분투해야 하는 거창한 변혁의 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 제9차대회가 가리킬 앞으로의 5년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우리 군대의 특출한 역할이 보다 높아지는 5년으로 될것입니다.

정녕 우리 군대와 같이 자기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혁명적무장력을 전위에 세우고 새세상을 개척해나가는 우리 당의 배심은 언제나 든든하고 세상을 다 얻은것처럼

금지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

건군절에 즈음해 전군의 전체 장병동지들에게 다시한번 열렬한 축하를 보내며 건투를 바랍니다.

조국을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용감무쌍한 우리 군대의 전진은 더욱 빨라질것이며 그 전투적로정에는 자랑찬 위훈과 명성만이 빛날것입니다.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장병들은 우리 혁명 무력에 강군의 생명을 주고 눈부신 영광과 훨승의 힘을 주는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믿음과 사랑을 성장의 자양으로, 운명의 피줄기로 간직하고 당중앙을 따르는 길에서 한치의 탈선도 모르는 신념과 의리의 인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온넋을붉게 물들이는 사상의 강자가 되여 사회주의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안녕을 위하여,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워나갈 전투적열광에 넘쳐 충성의 구호와 혁명군가를 합창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성 주요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과 뜻깊은 력사의 화폭을 남기시였다.

국방성중앙군악단의례식이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을 기념하여 국방성 본부 장령, 군관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결정을 절대적인 진리, 지상의 군령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한마디 《알았습니다.》로 화답해온 우리 군대가 마주한 새로운 투쟁에서도 력사의 모든 난대의 영웅성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신화로 시대를 빛내이고

후세토록 경의를 받을 우리 세대의 명예를 높이 떨쳐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군절경축 국방성 지휘성원들의 체육경기를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건군절기념행사에 초청된 제대 장령들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영도사와 언제나 함께 해온 장구한 건군사의 갈피갈피에는 한생을 혁명의 군복을 입고 무한한 희생과 불굴의 기개로 당과 조국을 충직하게 밟들어온 제대장령들의 고귀한 헌신의 자취가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군력강화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의 국방성에 대한 축하방문은 국가주권과 발전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지키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우리 혁명무력의 전위적역할을 변함없이 과시해 나갈 인민군장병들의 숭고한 사명감과 분발력을 백배해준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 기념대회 성대히 진행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 기념대회가 1월 16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 청년대표들이 수백만 청년전위들의 열화 같은 경모의 정을 담아 삽가 꽃다발을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뜻이 답례하시며 청춘의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조국의 번영을 위함에 깡그리 바치며 값높은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온 나라 청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개회가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약 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에 즈음한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를 앞두고 청년 동맹창립 80돐을 성대히 기념하는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혁명위업을 밟들어온 조선청년 운동의 영광님 친 투쟁사에 숭고한 경의를 표하시고 당과 조국에 충성하여 일터와 초소, 교정마다에 청춘의 고결하고 아름다운 자욱을 뚜렷이 새겨가는 온 나라 청년들과 청년

동맹 조직들,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국의 첫 기슭에서 부강한 국가건설을 열망하는 각계층 청년들의 단결의 기치로 출현한 때로부터 청년대오의 충성스럽고 애국적인 지향과 강용한 보무에 박차를 가하며 가장 궁지높고 영광스러운 년대기들을 새겨온 청년동맹의 발전행로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이 걸어온 80년의 투쟁사는



온 나라 청년들 모두가 체질화, 신념화한 사회주의리념과 숭고한 조국애, 열혈의 정의감과 순결한 정신세계로 총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조선청년의 지위와 명성을 또다시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고 있다고,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을 다음 세대를 훌륭히 준비시켜 우리 조국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영광의 오늘에로 이어놓고 더 창창할 래일을 건설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나란히 놓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조선청년운동의 역사적공적이고 승리이라고 긍지높이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조국은 성스러운 80성상 자기의 전통을 옹호고수하고 신성한 의무와 본분에 충실하여 우리 위업의 계승을 굳건히 보장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대한 최고의 평가로서 국가최고훈장인 김정일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시면서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청년

들이 앞으로도 당과 조국의 영광스러운 혁사에 빛나는 이름과 공훈을 끊임없이 새기며 혁명위업의 줄기찬 계승과 전진을 억세게 떠밀어나가기를 바라면서 자신께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기에 영광의 훈장을 삼가 달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의 꿈, 조선의 미래가 청춘을 부르고 있다고 하시면서 어머니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조선청년의 명예를 위하여 더 용감히, 더 씩씩하게 투쟁해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어버이의 열렬한 호소에 화답하여 조선의 청춘들이 터치는 열화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의 우렁찬 함성이 울려퍼지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원수님을 우리리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같은 보답의 일념, 계승의 의지로 충만된 청년전위들에게 뜨거운 격려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정일훈장을 수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기발에 김정일훈장을 달아주시고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훈장증서를 전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 특출한 위훈을 세운 모범적인 청년들을 만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머니조국을 위해 투신하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인생의 더없는 영예로 여기며 당의 부름 앞에 무한한 충성과 로력적성파로 화답해나가는 그들의 특출한 소행을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의 온갖 도전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혁명을 비약적상승에로 이끄는 우리 당의 두리에는 항상 충직한 청년전위들이 성벽을 이루고있었다고 하시면서 세기와 낸대를 이어 당의 위업수행에서 발휘한 우리 청년들과 청년동맹의 중대한 역할과 눈부신 공적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참으로 기적적이고 위대한것이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존엄과 위상을 만방에 떨치고 전국을 동시다발적으로 부흥시키는 오늘의 거창한 위업도 당중앙은 다름아닌 청년들을 굳게 믿고 구상하고 전진시키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청년들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의 크나큰 자랑이고 그 어떤 물리력으로도 꺾을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선의 힘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기념행사참가자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주체조선의 주인공답게 열혈의 슬기와 정열, 무한한 힘과 기상을 남김없이 분출시키며 부흥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의 전렬에서 애국청년의 명성을 계속 힘있게 떨쳐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청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전위들에게 오래도록 손져어주시며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 뜻깊게 경축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한 장엄한 투쟁의 전열에서 청춘의 기개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는 온 나라 청년들이
주체적청년조직의 창립일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 기념행사참가자들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진정하였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기념 사진전람회 《위대한 청년중시정치로 혁명의 계승자,
애국청년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여》가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창립 80돐기념 청년학생들의 야회 진행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월 1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철삼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당이 인민을 위하여 시작한 더없이 영예롭고 보람찼던 온실종합농장건설이 마침내 결속되어 불과 한해사이에 초유의 대온실군이 장쾌한 경관을 펼쳤다고 하면서 오늘의 준공은 보다 원대한 목표를 향한 활기찬 진군으로 이어질 2026년의 경이적인 변천을 상징하는 사변적 성과로 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지금 우리모두는 스스로도 놀랄만큼이나 대단한 변혁을 마주보고있다.

여기에 무슨 요란한 말과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백마디, 천마디로 설명할 필요가 없고 또 표현할길도 없는 현실을 목격하고있다.

대대로 둘란리를 숙명처럼 여기던 이곳에 주민들이 천년홍수에도 끄떡없을 든든한 방벽의 보호속에 흥겨운 로동으로 가꾸어갈 새 삶의 러전이 펼쳐진것이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

우리의 젊은 세대는 자기의 청춘시절처럼 아름답고 자기의 명성처럼 긍지높은 새 전변을 자랑스럽게 이루어 놓았다.

보람찬 대자연개조투쟁에 퀄기한 그날로부터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은 조국의 귀중한 한 부분에 청춘의 슬기와 열정만이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한 드높지 않는 신념과 미래에 대한 확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물었으며 그우에 세세년년 복락을 누려갈 인민의 재부를 쌓아올렸다.

바람세찬 건설장에서 불굴의 용맹과 열혈의 기개로 써고귀한 투쟁기를 엮어온 젊은 혁명가들의 값높은 투쟁이





없다면 우리가 이 위대한 기념비적창조물앞에
설수 없었을것이다.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은 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자랑찬
창조의 성과로써 우리 혁명의 가장 강위력한 정예대오,
전위부대라고 당당히 말할수 있는 자격을 다시한번 증명
했다.

드넓은 섬지구의 한치한치에 너무도 진하게 고여진
열혈의 젊음과 뜨거운 정성은 고귀한 애국의 자욱으로

길이 남을것이며 이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역사에 떳떳이
씌여질것이다.

뜻깊은 자리에서 거창한 건설투쟁의 주력이 되여 영웅
적인 위훈으로 당과 혁명에 충성하고 시대의 거세찬 전진을
양양시킨 미더운 장병들과 청년건설자들의 애국충심에
경의를 드리며 조국과 인민의 축복을 삼가 전한다.

오늘과 래일의 당당한 건설자, 용감한 개척자들의 애국의
보무와 더불어 조국의 대지는 더 풍요롭고 아름다와



질것이며 우리의 리상과 결심은 반드시 줄기찬 전진과
승리로 빛날것이다.

진심으로 다시한번 모두에게 감사를 표한다.
조선청년의 젊음으로 영원히 푸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위대한 변혁과 통성의 시대를 위하여 올해에도 더욱
용기백배 나아가야 한다.

끌으로 지역주민들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신의주
온실종합농장의 준공을 다시한번 축하한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술하의
천만자식 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시대의 영웅으로
키워주시는 위대한 스승, 친근한 어버이를 격정 속에 우러
르며 열광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 테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신의주남새과학연구중심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인민, 혁명의 부름에 혁명적





진출로써, 용감하고 열정적인 청년특유의 배짱과 기세로 써 화답하며 조국의 서북면에 거창한 변혁의 영웅전기를 아로새기고 어머니당대회에 불멸할 존엄과 영광을 선물한 청년전위들에게 따뜻이 손저어주시며 고무격려해주시였다.

준공을 기념하는 의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토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과 함께 신의주남새과학 연구중심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에 공헌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중앙 및 현장지휘부 일군들을 만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양어와 남새재배를 겸한 태양열온실을 비롯하여 여러 류형의 온실호동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의 잔디 한포기, 나무 한그루에도 우리 군인들과 청년들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당정책에 대한 결사판철의 정신이 승배여 있다고 하시면서 모범적인 군인들과 청년건설자들에게 국가표창도 내신하고 총화평가사업도 크게 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신의주온실종합농장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생활향상에 이바지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하시며 기념비를 제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역인민들의 복리증진과 더욱 문명 부유해질 밝은 미래를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신의주온실종합농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 청년전위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웅대한 지방발전구상과 결심을 절대의 진리로 간직하고 불같은 애국의 열정과 로력투쟁으로써 이곳 섬지구를 새시대의 리상적인 농장도시로 홀륭하게 전변시킨 우리 군대 장병들과 청년건설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청년들, 군관, 병사들이 용솟음치는 청춘의 힘과 열정, 슬기와 용맹을 더욱 배가하며 강대하고 아름다울 우리 국가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조선 청년의 명예를 위하여 더 용감히, 더 씩씩하게 투쟁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광스러운 어머니당 제9차대회가 충성의 로력적선물을 안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에 당당히 들어서게 될 장한 청년건설자들을 기다리고있다고, 우리 평양에서 다시 만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새 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본보기로 일떠선 삼광축산농장 조업식 진행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의 출기찬
실행으로 온 나라 농촌이 앞을 다투어 변모되는 문명의
새 풍경이 일년사계절 끊임없이 펼쳐지는 속에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리가 현대적인 축산기지, 사회주의리상향으로
아름답게 전변되어 조업의 경사로운 시작을 맞이하였다.

새시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축산업발전의 본보기로
일떠선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이
2월 2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업식에 참석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삼광축산농장조업을 기념하여 혁사적인 중요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우리는 새로 조업하는 삼광축산농장에서 선진성과 현대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농촌의 또 하나의 독특한 발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가 리상하는 변혁의 높이, 개변의 정도를 명확히 새겨주는 새로운 기준이며 축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시기 농촌건설에서 찾은 교훈에 비추어 우리 농촌, 우리 축산의 금후 발전방향을 그어줄 새 출발점, 혁신적인 기준을 개척하기 위하여 시작한 삼광축산농장건설의 목적과 그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도달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전망을 바로 여기 삼광리가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는 삼광축산농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확대하여 농촌발전을 새로운 질적변혁 단계에로 이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농촌발전 정책실행과 나라의 축산업을 세계적수준의 현대축산으로 확고히 전환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조업 테프를 끊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리상향으로 훌륭하게 변모된

고장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된 지역주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과 함께 삼광축산농장 제1분장과 시설모재배장, 젖제품생산장 등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량한 품종의 젖소들과 염소들을 사육하는 흐뭇한 모습을 보시며 역시 축산에서도 기본은 종자이라고, 국가적으로 우량한 품종들을 보장해주는 체계를 세우고 원종보존사업을 과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에서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충분한 사료보장, 과학적인 사양관리와 철저한 수의방역과 함께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 지능화를 축산업발전의 5대

고리로 내세운데 맞게 농장에서는 기술관리와 설비관리, 사양관리, 사료관리를 최적화하고 선진화하여 생산원가를 낮추면서도 생산물의 질을 높이는데 큰 힘을 넣어 앞으로 계속 우리당 축산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한 생산성파로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농장의 경우와 같이 현시기 농촌들에 현대적이고 공업화된 요소들이 많이 주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 장려하고 정책화하여야 한다고, 축산농장의 생산체계를 일체화하고 수의약품생산을 늘이며 축산정보 기술연구단위를 새로 나오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전문성있게 발전시키는것이 바로 새시대 농촌 혁명강령의 확대심화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행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장의 젖제품 생산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상물리생산체계에 기초한 지능화된 젖제품 생신설체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생산환경과 실리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최근 생산공정의 지능화, 정보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경험들이 많이 창조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뚜렷한 목적지 향성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젖제품의 맛도 보아주시면서 중앙의 제품 못지 않다고, 오히려 맛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이름없던 농장에서 빠다와 치즈, 젖가루, 신젖 등 10여 가지의 젖제품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훌륭한 젖제품들이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된다고 생각하니 커다란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농촌은 그 어디에 내놓아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월등하게

건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 있게 추진해나가실 드림없는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화도지구에는 온실 남새 생산의 본보기적 실체가 일떠서고 삼광지구에는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표준이 창조되었다고 하시면서 전형을 먼저 창조하고 전국에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식의 전통적인 발전방식, 발전법칙이라고, 이를 농촌건설과 지방건설에 유기적으로 잘 구현해나갈 때 우리당의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과

지방발전 정책 실행에서 보다 획기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혁명 위업에 대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 자신심과 분발력을 더욱 백배하면서 농촌 및 지방건설에 대한 국가적인 지도의 집중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투자와 지원을 보장하여 당의 농촌건설 정책과 지방발전 정책이 우리 국가건설사에 긍지 높은 페지를 새기는 역사적인 총화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 진행



새시대 천리마정신 창조의 거세찬 봉화가 타오른 통성기계련합기업소가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과 기술적 진보를 앞장에서 견인해나갈수 있는 현대적인 대규모 기계제작기지로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일신하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대상 준공식이 1월 19일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



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총리동지는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어렵고 방대하지만

당중앙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를 훌륭히 수행한 그 정신, 그 기세로 계속 힘차게 전진한다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내세운 목표들은 반드시 점령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9차대회를 앞두고 우리 국가 경제의 자립화를 실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띠는 성과를 이룩한 통성의 로동계급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 기계대학의 교원, 연구사들, 함남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 련관부문 일군들에게 사의를 표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내의 핵심적인 정책사업으로 추진되어온 통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기술개선사업의 의의와 교훈에 대하여 언급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부흥번영에로 나아가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오늘을 걸어지고 미래를 당겨오는 힘있는 개척자, 진정한 투사들을 요구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지도간부들과 생산자대중모두가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하여 당의 현대화 정책의 진수와 요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목적지향적인 설계와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우리 대에 반드시 국가의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현대화되고 선진적인 경제를 건설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준공





테프를 끊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가 기계공업의 현대화, 선진화를 위한 큰걸음을 내짚었다고, 자립경제의 근간을 믿음직하게 다지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가 마련되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경제전반이 안정적인 장성궤도에

올라서고 지방발전을 위한 거창한 위업이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기계설비들에 대한 더 높은 질량적수요를 제기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능률적인 기계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생산하며 기계설비의 현대화와 질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연구와 인재력량강화를 중단없이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가 도달하여야 할



다음단계 현대화목표와 기계공업부문 전반을 새로운 선진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는 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창조와 비약의 기상이 나래치는 통성기계련합기업소에 정말 정이 든다고 하시면서 통성의 로동계급이 새시대 천리마정신의 창조자들답게 혁명적열정과 자신심을 배가하여 1단계 개건현대화에서 달성한 성과를

위력한 도약대로 삼아 2단계목표점령에 매진분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의 성과적인 결속은 자력의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목표와 리상실현을 위해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활기찬 전진기상을 뚜렷이 과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 진행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이 1월 20일 성대히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근 80년의 연혁을 새겨온 온포근로자휴양소가 종합적인 문화휴식기지, 치료봉사기지로 그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고 지방의 발전면모를 멀치는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일면서 인민들에게 안겨지게 되었다고 하면서 훌륭한 명소가 안고 있는 특유의 정서속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건강과 활력을 되찾고 사회주의 우리 생활에 대한 보다 큰 보람과 희열을 느끼게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소문난 명승지인 온포지구의 새로운 전면은 원수님께서 이곳을 찾아오시였던 2018년 7월의 그날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정치좋은 곳에 우리의 뜻이 살아나는

세련된 건축미와 각이한 봉사기능을 갖춘 휴양소신설에 바쳐오신 원수님의 크나큰 토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명칭이 보여주는것처럼 이곳 휴양소는 근로자들을 제일로 위하고 모든 복리의 향유자로 내세우는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결정체이며 이것은 그 어떤 자연미나 건축술로도 표현할수 없고 억대의 금전으로도 산출할수 없는 이 창조물의 진가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충천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보다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욱 문명하고 아름다울 조국의 래일을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토프를 끊으시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그대로 혁명의 장관으로 펼쳐진 준공식장에 꽃보라가 흘날리고 고무풍선들이 날아 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의 매 구획들이 실용적으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건축의 모든 요소가 주변의 자연환경과 친숙하게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문화생활 영역을 부단히 확대해나가는것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우리당의 텁장에 대하여 폐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역사가 오랜 온포온천지대에 부단한 발전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문화휴양지, 문명의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몇해전 이곳에 왔을 때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사적건물이라는 간판은 걸어놓고도 휴양소의 모든 구획과 요소들이 비문화적이고 운영 또한 비위생적으로 하고있는 실태를 심각히 비판하던 때가 기억 난다고 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민의 훌륭한 휴양봉사기지로 다시 개건된 휴양소를 보니 참으로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했다는 긍지가 생긴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령도업적은 간판이나 말과 글로가

아니라 인민들 누구나 반기고 환호하는 투쟁의 결실로써, 인민들의 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혜택으로써 고수하고 빛내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인민적정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고, 우리는 꾸준하고 혁신적인 개척과 진보로써 사회주의문명창조에서도 시대를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에 대한 관리, 지도를 현재 로동성 휴양관리국이 맡아하고있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전국도처에서 인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관광지들과 휴양소, 농양소들이 대대적으로 일면서 고무풍선들이 날아 올랐다.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개화의 새시대에 맞게 전국에 분포된 치료 및 휴양, 료양기지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봉사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합리적인 기구적 대책을 세우는 문제를 연구해볼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인민적시책들은 끊임없이 심화되어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궁지높고 보람찬것으로 되게 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국적범위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다양한 문화생활역과 공간을 부단히 확대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포근로자휴양소 일군들과 종업원들, 련관단위들에서 설비시운전을 비롯한 운영 및 봉사준비를 잘하여 2월중에 휴양소를 개업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준공식 참가자들은 산간지역고유의 멋과 특색이 잘 살아나면서도 현대건축술의 제반 요구가 철저히 구현된 종합적인 문화휴식 및 료양치료봉사기지를 경탄속에 돌아보면서 사회주의 우리 제도의 고마움을 가슴뜨겁게 체감하였다.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속에 새 모습으로 개변된 온포근로자휴양소는 나날이 흥해가는 우리의 세월과 함께 인민들의 생활속에 정답게 깃들어 행복의 웃음을 세세년년 꽂피우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10일 완공 단계에 들어선 화성지구 4단계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먼저 화성지구 살림집건설령역 건물 배치도와 총조감도를 보시며 건설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 제9차대회에 제기할 수도건설계획 작성과 관련한 견해를 피력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에 새로 일떠선 새별거리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끊임없는 문화적발전을 견인하는데서 수도가 항상 주도적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건설법을 세부적으로 규범화하고 주택구들에 필수적인 편의봉사와 체육봉사기능을 갖춘 시설들을 표준화하여 특색있게 꾸리는것과 함께 시민들의 문화적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새로운 봉사직종들도 적극 개발 배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별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문명개화의 눈부신 경관을 이룬 화성지구를 기쁨속에 바라보시면서 수도가 정말 달라졌다며, 5년동안 힘들게 분투한 보람이 있다고, 분명히 우리의 투쟁령역과 목표는 더욱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적 판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건설사업들과 더불어 경이적인 변화는 오늘의 조선을 대표하는 확고한 흐름으로 되고 있다고 궁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는 이러한 변혁의 속도를 우리 혁명의 전진속도로 규정해야 하며 년년이 한해를 마감하는 계절에는 새로운 기적을 체감하는것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풍습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화성지구는 원대한 리상을 안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목표를 향해 나날이 더 힘차게



전진하고 더 높이 비약하는 우리 위업의 양양한 전도를 확신케 하는 시대의 상징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순간도 자축하거나 만족할수 없는것이 건설혁명이라고, 건축은 당대의 사상과 문화적수준의 직관적 표현으로서 부단히 새것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와 시공의 잠재적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건설정책집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도시경영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원림록화를 비롯한 문화적인 환경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은 당에서 이미 천명한 수도건설정책의 주요원칙이라고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수도건설자들이 우리 국가의 부흥과 발전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공지를 안고 배가된 지혜와 열정, 투자로써 인민의 새 거리들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하게 완공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지방혁명의 전면적인 확대고조를 향한 새년도 투쟁의 기세찬 발화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 성대히 진행



우리 국가의 전면적 융성발전을 확실히 담보하는 지방 혁명의 귀중한 성과와 경험, 성공적 결실들을 보다 과감한 새 출발의 리정으로, 가속적인 동력으로 년년이 이어가는 조선로동당의 견결한 개척정신과 드림없는 결행력을 과시하며 2026년도 지방건설투쟁이 개시되었다.

당해의 착공폭음이 준공의 환호성으로 이어지는 경이적인 변화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로운 풍습으로 되여 온 나라를 격동시키고 있는 속에 올해부터 나라의 20개 시, 군들에서는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건설과 함께 시범단계를 성과적으로 경과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종합적인 문화봉사거점을 아우르는 방대한 건설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확장실시 되게 된다.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펼친 우리 혁명의 새로운 상승 단계의 휘황한 전망을 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인민이 환호하는 지방변혁의 대경사를 불러올 건설대전의 신심 충천한 착수는 해가 바뀔수록 부단한 혁신, 멈춤없는 고조로써 세기적인 전면을 당겨오려는 우리 당의 연속공격, 계속전진의 힘찬 보무로 된다.

지방발전정책의 진리성과 눈부신 전도에 대한 전인민적인 락관과 신심을 비상히 격양시켜주며 새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의 시발로 되는 성대한 착공식이 1월 29일 은률군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부터 우리는 지방변혁을 향해 인민군대를 세운 목적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군대는 전국이래 처음으로 되는 혁신적위업수행의 전위대이고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들이라고, 지방건설에 동원된 부대, 구분대 지휘관들은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군인건설자들의 정신적성장에 특별히 품을 들어 모두를 당의 혁명사상의 연결한 신봉자, 옹호자, 관철자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애국자들로 육성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년간에 걸친 우리당 지방발전정책 실행과정에 경제로대구축과 지방공업의 경쟁력, 지방에 대한 인식령역에서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당은 지방발전정책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년차별계획들을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강력하게, 철저하게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앞장에 20개 지역에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될것이며 하여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게 될것이라고, 이같은 사실은 전국적범위에서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련속적으로 개변 향상시키려는 확고한 의지의 실증으로 되는 동시에 확대 심화되는 지방발전정책실행의 줄기찬 기세와 년년이 장성 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군인건설자들이 당의 전위대, 혁명의 수호자,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지켜 국가의 번영과 사랑하는 우리 인민을 위한 창조투쟁에서 조선인민군의 기질과 본래를 남김없이 파시하며 더욱 용감히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호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각급 제124련대 관병들의 맹세문이 랑독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 지도간부들과 함께 착공의 첫삽을 뜨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발파단추를 누르시자 세월을 주름잡는



불굴의 투쟁속에 더 강해지고 더 빠르게 부흥하려는 자력의 기상이 장쾌한 폭음으로 터져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조선인민군 각급 제124련대 지휘관들과 모범적인 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발들여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변혁의 개척자,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고귀한 명함을 힘있게

펼쳐갈 일심충성의 맹세를 담아 《김정은》, 《결사옹위》의 함성을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은물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착공식은 부단한 발전과 비약을 지향하는 새시대의 기세찬 투쟁정신, 원대한 리상을 향해 가속화되는 우리 조국의 창조속도와 더불어 또다시 가슴벅차게 성취될 새로운 거폭의 변화와 줄기찬 성공을 예고해주는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건설장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5일 당 및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영웅들의 영생을 기원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시공의 모든 공정마다에서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의 뜨거운 지성에 감사를 표하시며 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도간부들과 함께 기념관원림조성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식수의 첫삽을 뜨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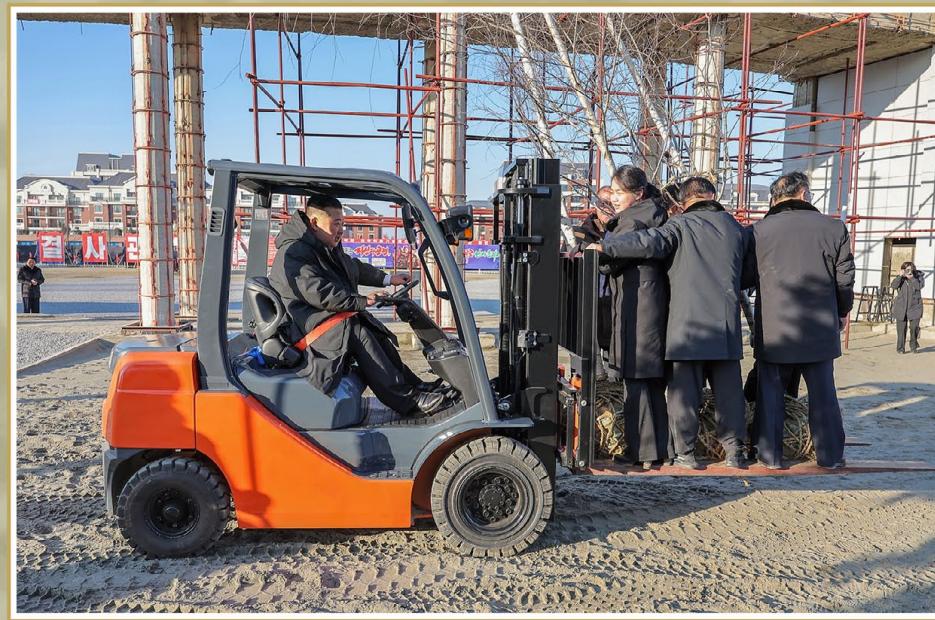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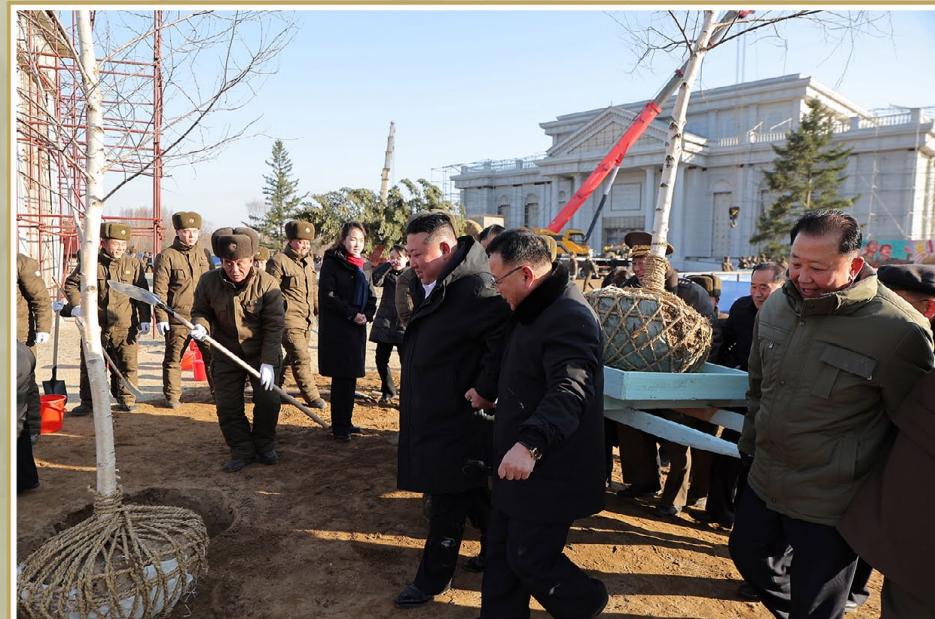
내리게 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도 영광스러운 우리 국가의 불멸함과 무궁한 번영을 염원하며 둘도 없는 생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영웅전사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공경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이 깃들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오랜 시간 식수를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기념관건설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공사진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은 조국의 위대한 명예의 대표자들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의 결정체이며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들의 영용성을 상징하는 시대의 대기념비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건설로써 우리 국가의 수도에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요한 사상정신적거점이 또 하나 태여나게 된다고, 기념관의 건립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전승절을





비롯한 주요명절들을 영웅들과 함께 기념하며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불멸성과 조선인민군의 훌승불패성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하게 될것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조국의 별들로 영생하는 참전렬사들의 빛나는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되새겨보시며 당의 명령앞에 절대충성하고 자기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는 이런 군대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당해낼수 없다고, 이것은 혁사의 철리이고 법칙이라고 확인하시면서 기념관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심을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전투위훈기념관건설에 모든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군관, 병사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과 믿음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조각창작사업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1월 25일 만수대창작사를 찾으시여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에 건립하고 설치할 조각창작사업을 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상징탑, 중심군상, 부주제군상, 외벽 장식조각판 등을 보시면서 창작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을 조선의 훌륭한 아들들, 명예의 수호자들의 전설적인

공훈파 빛나는 삶을 길이 전하는 만년대계의 창조물로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의 의도에 맞게 전반적인 조각 창작사업이 기념비적가치와 상징성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 원칙에서 진행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위훈기념관의 상징탑형상을 세부적으로 잘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상들마다에 우리 군대의 전투적

기개와 맹렬한 공격정신, 숭고한 전우애와 열렬한 조국애를 보다 실감있게 상징화하며 용사들의 영웅전과 신성한 냇에 드리는 조국과 인민의 경의를 특색있게 부각시키는데서 나서는 문제, 조각형상의 내용적요소들 사이의 배치와 배렬에서 조형적세련미를 보장하는 문제, 조각형식과 건축구조물들을 조화롭게 통일시켜 기념비로서의 특색을 살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비롯하여 창작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창작사의 창작집단이 참된 애국자들에게 드리는 우리 당과 정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감사와 경의심을 최대의 성심을 안고 훌륭한 창조의 결실로 구현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극초음속 미싸일 발사훈련 진행



1월 4일 조선인민군 주요 핵력타격집단관하 구분대의 미싸일발사훈련이 진행되었다.

이번 훈련은 극초음속무기체계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임무수행 능력을 검증, 확인하며 미싸일병들의 화력 복무 능력을 숙련시키는 한편 우리의 전쟁억제력의 지속성과 효과성, 가동성에 대한 작전평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발사훈련을 참관 하시였다.

전쟁억제력의 중요구성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성능제고 및 운용능력숙달을 통하여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핵억제력을 유지 및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적과제로 된다고 하시면서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평가 하시였다.

『오늘 발사훈련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싸일병들은 공화국핵무력의 준비태세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으며 그에 대한 신뢰심을 제공하였다.

최근에 우리의 핵무력을 실용화, 실전화하는데서 중요한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은 당의 국방건설로선과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안아온 결실이고 우리의 특출한 과학기술집단이 이루어낸 고귀한 결과이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군사적수단 특히 공격무기체계들을 간신히 여야 한다. 그것은 곧 자체방위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또한 전략적공격수단들의 상시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자체가 전쟁억제력행사의 중요하고 효과있는 한가지 방식으로 된다.

숨길것없이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핵전쟁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위기와 다단한 국제적사변들이 설명해 주고 있다.』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극초음속 미싸일들은 조선동해상 1 000km계선의 설정목표들을 타격



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 첫 전투훈련의 서막을 장쾌한 폭음으로 열고 강한 군대의 공격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훈련참가구분대에 감사를 주시고 전국 곳곳에서 전투적일 근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국가방위의 책임적인 임무에 전력하고 있는 전체 미싸일무력 장병들에게 새해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체 미싸일무력이 강철같은 규률속에 일관하고 책임적인 전투근무로써 공화국의 주권안전 수호의 믿음직한 방패로서의 성스러운 사명에 충실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1월 27일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갱신형 대구경 방사포 무기체계의 효력검증을 위한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을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정식동지,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장 장창하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요시험결과에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였다.

《오늘의 시험은 전략적억제의 효과성을 제고해나가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이 무기체계의 가장 위력한 특성을 가장 적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 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사격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구경방사포무기체계시험을 참관하시였다.

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적갱신을 하였으며 따라서 특수한 공격사용에 적합화되였기때문이다.

무기체계의 모든 지표들이 공격력을 극대화하는데로 향상되였으며 특히 방사포탄의 기동성, 지능성, 명중성이 비할바없이 갱신되였다.

새로 개량된 포차의 기동성 또한 완벽하다.

외부의 그 어떤 간섭도 무시할수 있는 자치정밀유도 비행체계는 이 무기체계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중요특징으로 된다.

이러한 성과에 도달하는 과정은 결코 헐치 않았지만 제시된 과업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에 의하여 훌륭히 수행되었다.

나는 최소 가까운 몇년안에는 그 어느 나라도 이와 같은

기술에 도달하지 못할것이며 그러한 능력을 가질수 없을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이 시험을 지켜보았다면 우리 국방기술의 현대성과 발전잠재력을 적수들은 분명히 인지하게 될것이다.

이는 우리 국방기술의 부단한 갱신과 끊임없는 진화에 대한 명백한 림증으로 된다.

늘 강조해왔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해당 활동의 목적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분명히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해나가자는데 있다.

이러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것 자체가 억제력의 책임적인 행사이다.

그것은 오늘날 자체방위를 위해 필수적이지 아닐수 없다.





나는 이 무기체계를 완성하는데 수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여온 국방과학연구집단에 감사를 전한다.

우리와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는 세력에게는 이 시험이 가지는 의의와 결과가 착잡한 고민거리로, 엄중한 위협으로 다가갈것이다.

우리 포병은 가장 집초적이고 파괴적이며 대량적인 공격력을 갖추고 전쟁억제의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

발사된 4발의 방사포탄들은 발사점으로부터 358. 5km 떨어진 해상표적을 강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공격능력을 구축하고 그에 기초한 억제전략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당 국가방위정책의 불변한 로선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는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흡모의 마음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17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단체, 국제기구들, 저명한 인사들이 다함없는 존경과 흡모의 마음을 담아 드린 수만점의 선물들이 보존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 예지와 특출한 령도력, 고매한 풍모로 하여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과 흡모를 받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매혹과 흡모의 정은 그이께 드린 선물들에도 그대로 어리여 있다.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정치가에 대한 경모심을 안고 로씨야국가수반들은 사냥총과

단검 등을 선물로 드리였다.

중국의 당 및 국가지도자들은 사회주의조선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자개박이웃칠벽걸이, 량면수에 《보춘도》, 제직화 《송령학수》를 비롯한 지성어린 선물들을 드리였다.

캄보쟈의 국왕이었던 노로돔 시하누크는 정의의 위업에 사심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처음으로 두 나라 기발이 새겨진 금속공예품 등을 올린 때로부터 70여점에 달하는 선물을 드리였다.

뿔럭불가담운동창시자의 한사람인 전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씨또, 전 라오스국가주석 쯤말리 싸이냐쏜, 또고공화국 대통령이 였던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등도 그이에 대한 찬탄과 경모의 정을 선물들에 담았다.

위대한 장군님을 결출한 사상리론가, 위대한 실천가,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칭송한 이탈리아국제그룹 리사장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를 비롯하여 세계 수많은 인사들이 다함없는 칭송의 마음을 담아 그이께 성의껏 마련한 선물

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 세계 170여개 나라의 당 및 국가수반들과 단체, 국제기구들, 각계인사들이 드린 선물들의 수는 4만여점에 달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삼가 올린 지성어린 선물들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흡모심이 얼마나 강렬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글 김선경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뿐진 로씨야련방 대통령과 상봉하시는 위대한領導자 김정일동지
2001년 8월



탁상시계
로씨야련방 정부에서
드린 선물
1996년 4월



은차그릇일식
웨. 웨. 뿐진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드린 선물
2001년 8월

은꽃병
웨. 웨. 뿐진
로씨야련방 대통령이 드린 선물
2007년 2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습근평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드리는 선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8년 6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농 득 마잉 웨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드리는 선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2007년 10월



량면수예 《보춘도》
강택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
드린 선물
2000년 5월



은그릇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쟈왕국
국왕이 드린 선물
1996년 1월



명주꽃병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
이란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2008년 2월



금손목시계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79년 6월



동조각 《코끼리》
로버트 지. 무가베
짐바브웨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94년 5월

모주단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85년 10월



은술가락, 은조미료단지, 은쟁반,
수정유리고뿌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또고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87년 2월



천연수정, 수정구

디디에 라찌라까
마다가스까르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90년 10월



상아조각 《꽁고인민의 생활모습》

데니 싸쑤 느게쏘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8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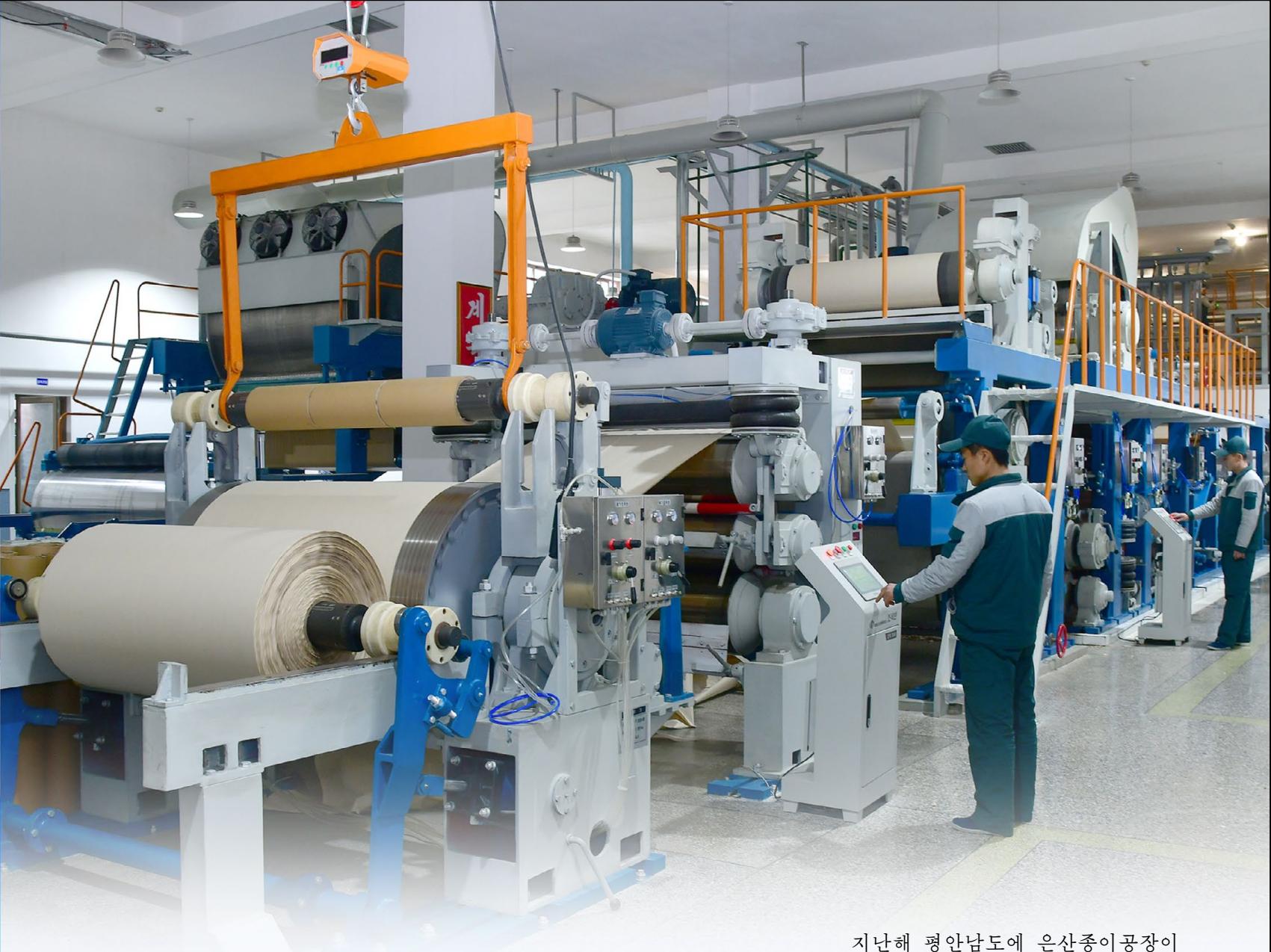
나무귀중품함

쌀민 아모우르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잔지바르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96년 11월



수정유리꽃병, 수지조각
《부엉이》, 수정유리재털이

엘 하지 오마르 봉고
가봉공화국 대통령이 드린 선물
1986년 3월



평안남도의 은산종이공장



지난해 평안남도에 은산종이공장이
새로 일어서 생산성과를 이룩하고
있다.

은산군에 도안의 인민들의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게 될 종합
적인 종이생산기지가 꾸려짐으로써
각이한 용도에 따르는 종이들을 원만히
생산할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
되었다.

은산종이공장에서는 지방의 흔한
원료들로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수 있는
제지기술을 도입하여 필기용종이,
포장용종이, 도배용종이를 비롯한 각이한
종이제품들을 다량생산하고있다.

종이생산공정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시작하여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공정이 현대화되었다.

공장에서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설비관리, 로력관리, 기술관리를 책임
적으로 하여 생산의 효률성과 지속적인
장성을 보장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을



공장에서는 지방의 흔한 원료들로 필기용종이, 포장용종이, 위생용종이를 비롯한 각이한 종이제품들을 다량생산하고 있다.



철저히 담보하고 있다.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면서 원료배합 비율과 농도를 정확히 보장하고 다용도 초지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있다.

그리고 종이성형품생산기술을 도입

하여 여러가지 종이성형품도 생산하고 있다.

자기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고 있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생산성과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사진 라평렬, 글 박경철





새로 일떠선 통합병설학교

락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는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병설학교이다.





지난해 11월 평양시에 락랑구역 전진고급중학교가 새로 일떠섰다.

이 학교는 유치원과 소학교, 초급 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는 통합병설학교이다.

학교교장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각급 교종들사이의 련계와 협동속에 교육교양의 효과성을 높이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의 천성과 소질에 따르는 교육의 지속성, 련속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한다.

통합병설학교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련속교육과 실천실기교육을 원만히 줄수 있게 교육조건과 환경이 그흔히 갖추어져 있다.

특히 초급반과 고급반교실들이 전문화된 과목교실들로 꾸려지고 학생들이 수업시간표에 따라 해당 과목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됨으로써 그들의 인식능력과 창발력을 훨씬 높여줄수 있다.

화학실험실이며 물리실험실, 목공 실습실, 식료실습실, 자동차실습실을 비롯한 실험실습실들도 학생들이 다방면 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꾸려졌다.

학교에는 학년별로 학생들의 수업은 물론 교원들의 련합분과모임도 진행 할수 있는 종합강의실도 꾸려져 있다.

복도에는 풍부한 지식을 주는 여러

가지 형식의 직판물들이 게시되어 있으며 홀들은 역사와 지리, 수학과 물리 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도록 꾸려져 있다.

뿐만아니라 학교의 체육관은 롱구, 배구를 비롯한 여러가지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사업을 할수 있게 꾸려진 복합체육문화시설이다.

유치원은 학령전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진행할수 있도록 교육교양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복도의 계단을 짚으면 음계가 나오고 벽면마다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그림들이 게시되어 있어 유치원의 모든 공간이 그대로 하나의 교육교양





마당으로 되고 있다.

동심에 맞게 특색 있게 꾸려진
물놀이장과 유희실, 종합놀이실들은
어린이들의 지능을 발달시켜주고
그들의 재능을 꽂피워주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우리 당의 교육중시사상과 승고한
후대관에 떠받들려 통합병설 학교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꽂피우고 있다.

사진 리철진, 라평렬
글 김선경

양덕온천문화휴양지

평안남도 양덕군에 특색있게 꾸려진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있다.

2019년 12월에 준공된 이
휴양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구상과 정력적인 령도가 안아온
결정체이다.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 할 종합적인 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할 구상을 펼치시고 이곳 온정리
일대를 적지로 정해주신 그이께서는
여러 차례나 건설현장을 찾으시여
훌륭히 완공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체육문화
기지들, 편의봉사시설들 등 모든 구성
요소의 실용성, 호상결합성, 조형
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이곳은
겨울철이면 더욱 활기를 띤다.

휴양지에 려장을 풀자마자 휴양생
들이 처음으로 찾게 되는 곳은 야외
온천장이다.

겨울의 찬 기운과 합쳐져 뿐만
안개를 피워올리는 온천물에 몸을
잠근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즐거움과
만족감이 한껏 어리여 보는 사람
들의 기분도 흥그럽게 한다.

누구나 온천욕을 하면서 주변의
산천경개를 부감하느라 시간가는줄
모르는데 특히 맨 옷쪽에 자리잡은
다락식 온천탕에서 바라보는 휴양지의
경치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휴양지의 명소로 되고 있는 닭알
삶는 터도 온천물에 삶은 닭알을
맛보며 즐기는 휴양생들로 흥성하고
있다.





휴양생들은 온천장들에서 느꼈던
희열감을 스키장과 승마공원에서도
체험하게 된다.

스키장정점인 대봉의 휴식각에서
휴양지의 전경을 한눈에 굽어보는 정서,

스키를 타고 주로를 나는듯이 지쳐
내리는 패감, 말을 타고 질주하는
승마의 멋이며 자연체광식수영장
에서 해빛을 받으며 푸른 물을 헤가르는
정서는 양력온천문화휴양지의 독특한

매력이다.

지금 양력온천문화휴양지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양의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경





© 조선화보사 2026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중국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



7-26088046895